



## KIPES를 키워야 합니다

인쇄인들에게 익숙한 메이저급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DRUPA를 필두로 미국 시카고의 PRINT, 영국 버밍햄의 IPEX,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동경의 IGAS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전시회는 평균 4년 주기로 개최되면서 인쇄시설의 변화 및 기술동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는 이번이 2회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쇄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북경에서 열리는 인쇄기자재전시회와 함께 메이저급 전시회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인쇄관련인들도 대거 참관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에도 오랜 역사를 지닌 인쇄기자재전시회가 있다. 1978년부터 2년마다 쉬지 않고 열리고 있는 KIPES(국제인쇄산업전시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COEX 전시장에서 열려 온 KIPES는 중량품 반입제한 및 전시회의 분할개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올해 9월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새로 개관한 일산의 KINTEX에서 열리게 됨으로써 성장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하겠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전시규모가 회를 거듭하면서 축소되고 있는 듯 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즉 2000년에 1만6천평방미터 전시면적에 21개국 297개사가 참여했으나 2002년에는 1만4천여평방미터에 21개국 266개사가, 2004년에는 1만3백여평방미터에 18개국에서 189개사가 참여하는 등 규모가 작아지고 있으며 올해 전시회도 1만4천2백여평방미터(4천3백20평)규모에 머무르고 있어 메이저급 국제전시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KIPES에는 오프셋, 디지털, 스크린인쇄기 등 각종 인

독일, 일본 등의 대형인쇄기계 메이커들이 한국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나 의심이 간다. 국내인쇄전시회는 외면하면서 일본, 중국, 독일의 인쇄전시회에는 인쇄인들을 대거 초청해서 참관하는 흐름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침체되어 있는 국내인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KIPES를 메이저급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로 키워야 한다.

쇄기기는 물론 프리프레스, 주변기기, 인쇄관련재료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현상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대형 인쇄기계 메이커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어 전시회의 중량감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쇄동향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일본 등지의 대형인쇄기계가 국내에 엄청나게 도입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메이커들이 한국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나 의심이 간다. 정작 국내인쇄전시회는 외면하면서 일본, 중국, 독일 등지의 인쇄전시회에는 국내인쇄인들을 대거 초청해서 참관하는 흐름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와 방법을 개선하면서 국내에 하나 정도의 인쇄전시회를 키워나가야지 수년 동안 아예 기계를 출품조차 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침체되어 있는 국내인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국산인쇄기자재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라도 KIPES를 메이저급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로 키워가야만 한다.

(오세익·편집주간)